

투데이 칼럼

급하게 먹은 밥 체한다 초심 잃지 말자

소통·공감·동행은 가치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행복한 축복의 땅 부안으로 따뜻한 변화가 시작될 지 어느덧 2년을 맞았다.

민선 6기 부안군은 소통과 동행을 중심으로 군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도시 부안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힘 없이 달려 온게 사실이다.

부대 민복'은 민선 6기 부안군의 행복비전이자 2016년 정령 600주년을 맞는 부안이 새로운 미래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면서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하다.

과거 600년 동안 생겨부안에서 누렸던 복을 미래 천년에는 부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겠다는 6만 군민의 담대한 의지도 담겨 있다.

그래서 민선 6기 부안군의 남은 2년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6만 군민은 물론 부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나눠주겠다는 부안의 꿈! '부대 민복'이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 희망 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소통·공감·동행행정과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 3원칙, 오복 오감정책, 부안마실축제 성공축제 변화 등은 이러한 부안의 꿈을 여롭게 하는 밑거름이다.



이옥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부안군 전 직원이 조직일체감을 형성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 작은 변화는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큰 기적을 낳고 부안의 꿈! '부대 민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민선 6기 부안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거리형 축제로 개선해 수십만 명이 찾는 성공 축제로 성장시켰으며 전국 10대 축제로 도약을 꿈꾸었다.

여기 예다 격포 대한민국 3대 아름다운 미항 조성 프로젝트, 줄포 하수도 중점관입하는 방식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지역 지정 등 대형 공모사업을 잇달아 유치하면서 지난해와 올 상반기 총 74개 사업에 103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특히 호적에 없는 늦둥이를 키우는 삼정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부안군 나누미근장학금 300억 원

확보는 90억 원 가까운 기금을 확보하면서 군민을 넘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후원하는 나누미근장학재단 후원회원은 4460여 명에 달해 매달 5000여만 원의 장학기금이 적립되고 있다.

13개 면 민의 날 행사를 지역 특색에 맞는 6차 산업 축제로 전환하고 읍면별 6차 산업 작품 선정, 민간주도형 축제 활성화, 귀농귀촌인 유치, 신 소득작물 발굴, 명품한우 브랜드 향상 등을 통해 6차 산업화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부안 차이나교육문화특구 조성을 통해 세계 1위 시장인 대중국 교류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새만금 수도 부안 건설을 통해 환해권 새만금 시대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다.

2023 세계캠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를 통해 글로벌 부안의 기틀을 다지고 동북아 마이스(MICE)산업의 거점도시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은 정성을 쏟아 왔다.

소·공·동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군정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마인드·창조행정 등 행정 3원칙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킨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부대 민복과 군민행복 실현을 자신했다.

'부대 민복'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군정의 모든 업무를 오복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내실을 다지고 소·공·동 행정을 통해 대내·외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외강을 구축했다.

행정 3원칙, 오복 오감정책, 부안마실축제 성공 개최 등은 부대 민복의 꿈을 여롭게 하는 밑거름이 됐어 부안군 조직에서도 전 직원들이 조직일체감을 형성해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본다.

이제 민선 6기 부안 군정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너무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고, 너무 빨리 추진하는 사업은 부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난 2년의 성과들이 물거품이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땀속까지 부안정신으로 무장해 부안발전을 이뤄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그것이 6만 군민이 김종규 부안군수에게 바라는 점이다.

사설

전북도, 재해 대책이 이래서야

지금은 재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본격적인 장마 시기를 당해서 전북도의 재해 관련 업무가 전혀 미덥지 않다. 장마철을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거듭 당부했지만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북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재해 대책과 관련해 심기 일전해야 한다.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거라면 차라리 옷을 벗어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전북 지역에 제주도나 부산처럼 비가 많이 내렸다면 또 모르겠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민들은 재해 당국이 뭐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특히 남원에 사는 예고 없는 가동보 수문 개방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그 후에 보여주고 있는 표락 서니가 참으로 가관이다. 허둥지둥하는 중에도 제 살길 찾는 데는 머리가 밝아서 다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말이다. 그래서 곤란하다. 그러가지고 는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칠 수 없다.

지역 재해라도 재산 피해가 아니고 인명 피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남원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

한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남원에 발생한 비극은 자연 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귀찮음이다. 자연 재해라니까 어떤 이는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다들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재해 중 상당수는 사람의 무관심이 초래한 인재이다.

전주시도 이번 정땀비와 관련해 지적을 당해 마땅하다. 전북도에 위치한 풍나물 공장에 바윗돌이 굴러 내리고 토사가 흘러내려 지붕이 파손 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절개지로서 위험이 예상되었음에도 그에 대해 이렇다 할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지금 도내 각 지자체가 장마 피해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기반이 든든한 고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장마 때면 이런 저런 손실을 반복해 당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전북도는 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를 주요 도정 과제의 하나로 올려 장마 피해 방지 작업과 정비 보강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

전북 현안 사업들 어디쯤 와 있나

지역발전 현안 사업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탄소산업을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영동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비판과는 반대로 뼈저터거리고 있다니 답답하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탄소산 업 전용 국가 산업단지 착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 예산도 반토막이 날지 모른다니 말이다. 얼마 전에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해 뭐가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오랜 체험 그대로 역사가 되고 있으니 실망이다.

그래도 전북도는 힘을 내야 한다. 낙후가 전북도의 말대로 정부 부처들의 탓 때문이라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되뇌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에 무한 책임을 맡았으니 이상 전북도는 생각을 바꿔야겠다. 전북도는 현안 사업 추진에 계속 힘을 내야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며 미리 기죽을 이유는 없다 는 것이다.이같은 격려는 결코 무

리한 것이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정신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물론 그 비상한 각오의 당사자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들이다.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야 한다. 새만금사업과 탄소사업이 먼저 떠오르는 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그저 고만고만하다. 그런데 탄소사업이 초장부터 뼈저터 거리고 있으니 여간 불만이 아니다.

전북도는 분발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한다. 정부 부처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생각된다면 더 뛰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말한다. 지역 발전 현안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브레인들의 구상이 치밀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행보 또한 한차야 한다.

독자제언

장마철 차량 관리·안전운전 이렇게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마철이 다가왔다.

장마철에는 젖은 노면 및 빗물 고임 등으로 자동차의 제동거리는 40~60% 정도 늘어나는 반면, 운전자의 시정거리는 짧아져 자칫하면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커진다.

미리 미리 준비해야할 차량 관리 방법과 빗길 안전운전 요령에는 크게 몇가지가 있다.

첫째 와이퍼 점검은 필수다.

장마철에 쏟아지는 장대비는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를 극도로 제한할 수 있다. 와이퍼는 원활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용품으로,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브레이크 관리가 필요하다. 장마철에는 빗물로 인해 브레이크

등 각종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차가 물웅덩이를 지난 경우, 마찰면인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물이 들어가 제동력이 낮아져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된다. 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장마철에는 브레이크 제동 능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셋째 타이어 트레드 점검이 필요하다. 트레드가 마모된 타이어는 배수가 불가능해 노면과 차이 사이에 수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자동차가 물 위에 살짝 뜬 상태인 '수막현상'을 발생시킨다. 수막현상이 심화되면 타이어가 노면에 닿지 않은 채 미끄러지기 때문에 노면 접지력과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브레이크 및 핸들 조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반국선 전주완성경철서 남문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학교폭력 적극 신고로 예방을

어느새 한학기가 끝나가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이 다가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 가정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등 예방활동에 우리사회의 선도와 많은 관심이 중요시 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은 2011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에서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조차

SNS를 활용한 언어폭력 및 따돌림 등의 빠른 증가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 폭력이 심각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하기 쉽지 않아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의 빠른 대처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처럼 경찰청에서는 학교, 경찰 등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들이 감시자와 내 자녀라는 마음으로 자치하여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시 신고·상당·지원 가능하고 전화 '국번없이 117'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안전Dream포털(www.safelife.go.kr)'을 개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경안 순천경찰서 남계파출소 경위

Large graphic with a boat on water and a sun/moon, containing text abou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nd '전주매일' logo.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